

時·論

문향(文鄉)포천의 맥을 잇자



리효종 抱川漢詩社 대표

우리 고장 포천은 산자수려(山紫水靄)한 아름다운 고장일 뿐 아니라 선비정신의 표상인 문향(文鄉) 포천으로도 이름이 높았습니다.

이름 높은 문인(文人...선비)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며, 전국의 시인묵객(詩人墨客)들이 이 아름다운 고장을 찾아 풍경을 찬미하고 그 자취를 수없이 남기었으며 이 고장에 매료되어 이곳에 자리 잡고 여생을 이 고장과 함께한 명인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선조(宣祖朝)때 명재상 사암 박순(思庵 朴淳)도 말년에 영평에 자리 잡고 있다가 여생을 마치고 그 당시에 대학자 왕족인 동은 이의건(李義健) 선생도 30유년을 유거하였으며, 대학자 삼연 김창흡(三淵 金昌翕)선생도 말년에 이곳에 영주하였으며, 졸탄 김권(拙呑 金權)선생도 이 고장에서 영주하시었습니다.

우리나라 한문 팔대가(漢文 八大家)가 계신데 월사 이정귀(月沙 李廷龜),상촌 신홍(象村 申弘),택당 이식(擇堂 李植),계곡 장유(溪谷 張維)를 한문학 사대가(漢文學 四大家)라고 하고, 적재 이서구(李書九),형암 이덕무(炯庵 李德懋),영재 유득공(柳得恭),조정 박제가(楚亭 朴齊家)를 한시 사대가(漢詩 四大家) 실학 사대가(實學 四大家)로 그 명성이 높아 世宗王朝에 이어 正祖王朝에 문예부흥(文藝復興)시대를 이룬 대학자이십니다. 보통 양문대신(梁文大臣)으로

통칭되는 이서구 선생이 우리고장 양문 출신인 명재상이요 명시인인 실학(實學)의 선구자 이십니다. 부연하면 漢文 四大家란 한문학(명문장)을 가장 잘하는 선생을 이르는 말이고, 漢詩 四大家란 한시(漢詩)를 가장 잘 짓는 선생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漢詩 四大家 출신자인 우리 포천의 실정이 15만 시민중에서 현재 한시를 짓는다고 하는 사람이 20명도 아니니, 참으로 한심스러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일은 전교(典敎)를 역임하신 소흥음 고모리 출신 유봉현(柳鳳鉉)선생이 우리나라의 漢詩 四大家의 한분으로 명성을 떨치고 계시며 현재 83세의 노구를 무릎쓰고 청년 유도회원 10여명과 노년층 유생 10여명을 교습하고 계시어 불행 중 다행으로 文鄉 抱川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씨 문향 포천이 이 꼴이 되었는지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어문정책(語文政策-교육정책)이 잘못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일본은 백제의 왕인(王仁)박사로부터 한문을 전수하여 假名(kana)와 함께 일본어를 발전시켰으며, 우리나라는 한문과 함께 한글을 활용하여 한국어를 발전시켰습니다. 일본은 패전 후에도 계속해서 초등학교부터 한자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우리나라는 광복이후 한자교육을 거의 폐지하고 공문서와 신문,잡지에 한문을 모두 추방시켰습니다. 일본의 경제력은 지금의 한국의 20배에 달하고 세계적 대학자 예슬가가 쏟아져 나왔으며, 국력은 너무나 엄청나서 세계의 최선두에 달해있습니다.

그 국력의 원천력이 독서력에 있다는 것이 유력한 견해이며, 그 독서력은 한자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자가 어렵고 시간과 정력을 낭비케하여 국가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된다는 주장은 증명 될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도 타당성이 없는 잘못된 주장이 자명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서구어(西歐語) 못지 않게 한자를 배워서 한자 문화권에 뛰어들어 일하여야 합니다. 교육정책에 시급한 정책 전환이 요망됩니다. 지난해 중국과의 교역량 수치 결산이 미국에 앞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에서는 현재 소학교에서 1006자를 익히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1968년 이후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2000자, 대학교를 나올 때까지 3000자를 익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암흑기에 조선어 독본에서 1441자가 들어 있었으나, 광복후에는 팔호안에 일부를 넣었으나 그 후 그것마저 없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한글전용정책에 따라 한자 문법을 만들고 있으며,한자 문화권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한맹(漢盲)을 만들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17억 한자 문화권에서 문화교류에 필수적이고 인격형성의 바탕이 되는 한자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절실히 느껴지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이 '한자+漢字' 문화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있고, 이 나라 교육정책을 시정토록하는 애국적인 인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한자 교육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말 가운데 순 우리말이 24%, 외래어가 6%이고 나머지 70%는 한자에 뿌리를 둔 한자어입니다. 한중일 상용통용(常用通用)한자가 1632자지만, 한자의 경제적 구조 때문에 몇 백자만 익히면 기하급수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힘 안드는 문자입니다. 한국의 漢詩 四大家 출신의 고향 포천의 한시가 대표라는 막중한 임무라 두렵기 그지않습니다. 이웃 의정부,양주 지구만 하더라도 한시 동호인이 30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20명도 아니니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않습니다. 포천의 유림들이 한시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다는 징조인 것 같습니다. 우리 포천에도 여러 유림단체가 많습니다. 각 면의 장의, 각 면의 유도회장, 각 서원 장, 명원회, 명유회 등 유림 단체에 참여하는 人士들이 100여 명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림하면 한시 한수쯤은 하는 것이 상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죄송스러운 건의오나 漢詩 四大家 출신자의 유림의 긍지로서 포천 한시사의 참여를 간곡히 권유 드리는 바입니다. 한시의 큰 스승 유봉현 선생의 지도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유기고 '프리즘으로 본 한국'

-③도로는 빵점, 친절은 만점



박석호 갈월중학교 근무

이민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씩씩하였는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이들 손잡고 계단을 오르내렸던 삼성역 입구에 들어서니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가 전부 계단이어서 노약한 사람들이 여행 가방을 들고 내려가기에는 너무 힘이 버겁다는 사실을 유아나 노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잘 된 외국에서 실다 돌아와서야 깨달았다. 호수에서는 모든 도로의 인도 중간 부분과 집으로 진입하는 곳이나 도로의 끝 커브에 유도차나 가방, 트롤리 등이 쉽게 다닐 수 있도록 인도와 차도 사이를 경사지게 만들어 놓았고 지하도에는 에스컬레이터 또는 유도차 등을 밀고 갈 수 있도록 경사지게 만들어서 항상 다닐 때마다 이를 칭찬했었다. 그런데 십수년만에 한국에 돌아왔어도 도로 시설만큼은 그 때와 마찬가지로 그대로여서 나같이 짐이 있거나 노약자·장애인들이 다니기에는 너무 불편한 것을 깨달았다. 그 동안 수많은 국제 행사들과 올림픽, 월드컵까지 치렀으면서도 왜 선진국들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도로의 편의 시설을 배워 오지 않았나 생각하며, 기술이 없어 못한 것도 아니어서 정치인들이 공무원들이 아직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가 부족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느꼈다. 전철역 지하도 입구에서부터 여행 가방을 끌고 한 계단씩 내려갈 때마다 "덜컹덜컹" 소리를 내고 가면서 "코엑스처럼 국제 행사를 많이 하는 곳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들락거릴텐데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 하나 없고 그것도 없다면 여행가방이라도 쉽게 들고 가도록 경사 시설이나 만들어 놓았는지. 이렇게 불편한 시설에 그 수많은 국제 행사는 어떻게 했단"하고 속으로 불평하고 있었다. 이 때 한 젊은 청년이 오더니 나를 보고는 자기가 아래까지 내려다 주셨다면서 큰 가방을 들고 빠른 걸음으로 내려다 주어서 청년에게 고맙단 인사

를 했더니 "괜찮습니다. 잘 가십시오" 하고 정중히 인사까지 했다. 그리고 바쁜 듯 가 버리자 "그래, 아직도 남을 도와주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 따뜻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가족이 처음 시드니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안내해 준 분이 무거운 이민 가방(주:개당 30kg쯤 됨)을 자동차에 올리면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호주로 가는 직항 노선이 없어 홍콩이나 다른 나라를 거쳐가는 긴 여행을 해야 했는데, 우리 가족은 홍콩을 경유해 시드니에 도착한 여행 뒤를이어서 아이들은 피곤했던지 공항주차장 아스팔트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민 생활의 고달픔을 곧 알게 되리라는 생각이 가없는 생각이 들었던지 우리 부부를 향해 "호수에 살려면 당신 아이들처럼 피곤해 앉아 있더라도 위로의 말을 하면서 머리를 만지거나 등을 두드리면 이 백인들은 어린애한테 섹스 충동이 일어나서 그러한다고 고백하니깐 조심해야 되요. 그리고 저기 가는 노인처럼 트롤리에 물건 나르는데 도와준다고 하단말에 하나 넘어지기도 하면 당신이 밀어 넘어졌다고 트립잡아 혼이 나서 가만 놔두세요"라고 단단히 주의를 준 기억이 떠올랐다. 전철을 타고 가면서 생각해 둔 목적지에 도달해 출구로 나가려는데 또 계단이었다. 가방만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그것 때문에 또 곤욕을 치러야 했다. 이번에는 오르막이라 더 힘이 필요했는데, 계단 시작 부분에서 위를 쳐다보며 어떻게 쉽게 올라가는 방법이 없을가 생각하고 있을 때 젊은 경찰이 오더니 나에게 물지도 않고 "아저씨, 큰 가방은 제가 출입구까지 들어다 드릴 테니 따라오세요"하면서 큰 가방을 어깨에 올리더니 손쉽게 출구까지 들어다 주면서 "아저씨, 잘 가세요"라고 말하면서 경례까지 부치고 바쁜 듯 나의 "고맙다"는 인사말을 듣지도 않고 큰길로 빠르게 사라지고 말았다. 그래서 숨을 크게 내쉬며 "고국에 돌아오니까 그래도 좀 살 것 같네. 백인들 같으면 한 명도 이런 친절을 베풀어 준 사람이 없는데"라고 혼자 중얼거리며 속소를 찾기 위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 '프리즘으로 본 한국'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결혼해 아이들을 키우며 호주로 이민을 떠나 17년간 생활한 후 다시 고국에 돌아온 박석호씨가 한국사회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것을 정리한 글입니다.

자·유·기·고



김형국 운암환경 대표 본지 조사위원

"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을 보냈더니 내심은 탓인지 기다려도 아니오고 밤중만 일편명월만 빈가지에 걸렸더라"

이 작자 미상의 고시조 한 귀절이 어찌나 내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모를 일입니다. 아마도 "내심은 탓인지 기다려도 아니오고"의 중장 부분에 마음이 끌렸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찬란한 내림(來臨)을 기다리는 마음 기다리는 대상이야 각각 다를 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결국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사는 것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들 탈무드의 지혜와 어떤 역경속에서도 그들의 독특한 문화를 지키며 건강한 정신 세계로 차분히 기다리는 유태인의 위대한 민족사를 우리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이 그대를 숙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는 어느 철학자의 말씀에도 차분한 기다림이 분명했듯이 힘든 세상, 고달픈 인생살이의 삶은 지혜는 순리의 존중섭리의 존중도 있었지만 그 중의 으뜸은 조용한 기다림의 소망이 아닐런지요?

오랜 소망 속에서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힘든 오늘을 참고 견디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가장 인간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도 모를 일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한 스피노자의 말도 어쩌면 소망의 기다림의 표현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기다림의 소망이 너무나 진솔하고 소박하기 때문입니다. 하루같이 천년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힘들고 고달파도 조용한 기다림으로

사단법인 **해동검도**

세계해동검도연맹 대한해동검도협회

사무랑

**모집대상**

유치부  
학생부  
성인부  
여성회원 특별지도 (주부반 모집)

**검도를 배우면...**

1. 정신력 강화
2. 집중력 향상
3. 인내력 향상
4. 바른예절 함양
5. 호신술로 자기방어

**<수련시간표>**

오후: 01: 30~02:30, 03: 30~04:30, 05: 30~06:30  
저녁: 07: 30~08:30, 09: 00~10:00

**찾아오는 길**

전북, 초성리

● 포천의료원  
● 보건소  
● 해동검도 포천분관  
● 버스터미널  
● 강방원

포천본관(수시입관·차량운행) 031-532-5739 관장 권기동